

정통 역리학 연구가
남광 한가경 원장

“역학은 과학...삶의 일기예보죠”

처음 사주 역리학에 관한 글을 이브닝 신문에 실기로 결정했을 때 기자는 떠벌 일일운세를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고 1년 치를 뽑아 놓으면 쉽게 쓸 수 있어 필자(남광)나 편집자에게 수월할 거라 생각했다. 연재 계획을 남광 선생한테 말했더니 대뜸 떠벌 운세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적중률도 그리 높지 않은 데 어떻게 독자에게 읽게 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품이 많이 가지만 개인별 상담이 훨씬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두 달이 지나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결할 겸해서 내발산동에 있는 미즈아가 행복작명연구원을 찾았다.

기자생활 접고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직장생활, 그것도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장 그리고 파워있는 언론계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인들이 많이 말렸다. 그러나 자유인, 도인의 길을 가고 싶었다. 기자 생활이 싫어서가 아니라 직장생활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 있고 새벽까지 참선수행을 할 수 있다. 저녁에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대기업 홍보실 직원이 돌리는 폭탄주를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내가 갖고 싶은 시간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3년과 2004년 나는 스포츠레저부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편집국장이 정치부장직을 맡으라고 세 번이나 말했으나 세 번 다 사양했다. 이미 인생관을 바꿨기 때문이었다. 세속적 권위나 잣대는 문제되지 않았다.

남광의 사주에 혹시 그런 흐름이 보였나
물론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퇴직후 나는 투잡인생을 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부른다면 그 일도 같이 하고 싶다. 하늘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투잡 인생은 그 일환이다.

어릴 때부터 선천으로부터 사주와 작명을 배웠다. 그 인연으로 역학공부에 심취하게 됐고 지금은 상담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역학 상담을 심리상담과 접목시켜 고객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 본인 스스로 해법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멘토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사주가 안 좋으면 평생 힘든가

고사성어에 運否天賦(운부천부)라는 말이 있다. 행운과 불운은 모두 하늘에 달려 있다. 운명은 타고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척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의 길흉화복은 다 자신이 만든 것이다. 누구를, 혹은 하늘을 탓할 일이 아니다. 전생에 자신이 지은 복에 따라 현재에 복을 타고 나는 것이다. 이 옷에 많이 베풀고 살았다면 돌려받을 복이 많다. 베풀지 않고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받을 복이 적을 것이다.



남광 한가경은 정통 역리학을 공부한 덕에 명쾌하게 운세를 말한다. 그는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고 해법을 제공하는 일에 만족하며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히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기자생활 접고 자유로운 도인의 길 선택해 마음껏 참선수행 지금은 상담·공직 활동 ‘투잡’ 분주...“저를 만나면 행운이죠”

자연의 법칙이다. 자신이 심은 대로 준 대로 거둔다. 하늘의 섭리란 정칙하다.

그럼 사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명(命) 2운(運) 3적(積)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전생의 업보에 따라 복을 타고 난다. 그러나 현재에 마음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것이 후천적 운이다. 교육과 환경,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현재의 생은 과거의 삶의 족적에 의한 인과응보의 산물이다. 이 현재의 삶이 또다른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역학적으로는 命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주그릇이 되고 運은 후천적 대운을 말하기도 한다. 積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에 베푸는 것을 말한다. 어려울 수록, 사업이 잘 안 풀릴수록 주위에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남에게서 받을 일이 생긴다.

상담했던 고객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역학적으로 분석하면 처벌이 없다 못해 가정궁이 완전히 깨진 사주였다. 첫 마디에 가정생활이 온전한 지부터 먼저 물었다. 그러나 그 분의 가정은 온전했고 아무 탈이 없었다. 나중에 손님은 부인을 데리고 다시 찾아와 사업상담을 했다. 손님이 수양을 열심히 해 타고난 운명을 초월한 것이었다. 아니 가정궁이 흔들릴 수 있는

사주를 기도와 정성으로 극복하며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조계사 등에서 법문을 듣고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참신앙인이었다. 이 손님을 미뤄 보더라도 운명은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함수이다.

일시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게 산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거 생에 지은 복에 따라 명은 타고 나지만 현재에 어떻게 삶과 교섭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신기(神氣)로 운세를 보는 사람과 다른점
‘신기’로 운세를 보는 분들과 역학인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영매가 돼 신령의 세계와 영적으로 교류해 점을 쳐주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천문학에 가까운 자연과학이다. 요즘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오는 ‘사다함의 매화’가 있다. 책력으로 일식을 예언했지만 역학도 이 책력을 보고 일기예보를 한다. 책력이란 달력이다. B.C. 2757년에 처음 중국 황제의 건강과 국가경영을 자문하던 대요라는 선인이 만든 달력이다. 우주자연의 흐름을 달력을 통해 짚어나가는 천문학, 즉 자연과학이 역학이다.

물론 영적인 직감도 활용한다. 상담을 위해 수행 기도 노력을 계속 해야한다. 빛나는 지혜를 열어나가기 위함이다.

남광 한가경 원장은

- 경남고, 영남대 법학과, 부산대 행정대학원
- 국민일보 사회부기자, 정치부 차장, 스포츠레저부장, 문화부 선임기자
- 미즈아가행복작명연구원장(현)
- 이브닝신문·불교방송 판판뉴스 인생상담 연재(현)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 등급위원회 위원(현)
- 국제 PEN한국본부 회원(현)
- 시인, 한국문인협회 회원(현)
- 한국역리학회 회원(현)
- 한국역술인협회 회원(현)
- 공직활동명: 한병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비법이 있는가

지난 5월 대만 타이페이를 다녀왔다. 거기서 역학인들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소통에 지장이 없었고 뿌리가 같다는 게 공통된 느낌이었다. 적전수, 궁통보감 등 역학서적들을 함께 공부했다는 점에서 기본체계가 같은 것이다. 다들 놀라워하면서도 반가워했다. 한가경의 사주는 한마디로 말해 음양오행론에 입각한 정통 역리학이다. 여기에 학인으로서의 행운이 된 게 중국 황제들을 돌보던 비법을 가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살 부분도 무시하지는 않는다. 사주 원국이 복없이 태어났다면 운이 나빠 한번은 풍파가 오고 이 때 신살은 어김없이 적용된다. 즉 나쁜 사주, 나쁜 운에는 신살이 잘 들어맞는다. 신살이란 과속살 고신살 원진살 백호대살 등이다. 나는 고객들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 명확한 처방을 제공해주고자 노력한다.

서영도기자 cosmos@ieve.or.kr